



美 명문대 7곳 합격 여수 김정선 양의 공부법

“공금한 것은 해결될 때까지”

“국제 기구에서 제 역할을 펼쳐보고 싶어요.” 최근 미국에 있는 대학 7곳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은 여수 출신 김정선(19·민사고 졸업)양의 장래 희망이다. 김양은 펜실베이니아대(유엔·U-Penn), 존스홉킨스대, UC버클리, UC샌디에고, 미시건대, 터프츠대, UCLA 등 미국의 유명 대학 7곳에 합격해 유엔으로 진로를 결정한 상태다. 오늘 9월 학기에 입학할 예정이다. 김양은 여수의 평범한 중학교를 졸업한 뒤 전국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민족사관고등학교 국제반에 입학, 당당히 미국 대학에 합격했다. 대도시 출신 아이들처럼 특목고 입학 목표를 한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과외는 언감생심이었다. 김씨는 민사고에 다닐 때에도 외국이나 대도시에서 온 학생들과 어깨를 겨루며 전혀 기죽지 않았다. 김씨의 당찬 모습에서 자신감이 묻어난다. 국제 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꿈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선 김씨의 공부 비결을 들어본다.

중학교(여수 여도중) 때까지 계속됐다. 김씨의 공부 스타일이 여수 수재들과 같은 점은 모르는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라는 점이다.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엔 백과사전, 인터넷 등 모든 것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중학교 수준의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봐도 공금증을 해소하지 못했을 때는 고등학교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책을 스스로 읽어야 풀렸고, 자연스럽게 선행 학습이 돼 나중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수학의 경우 단순한 문제 풀이보다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의 공부를 했다. 사회 과목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던 배경 지식과 연결시켜 익숙하게 만들었다. 이는 폭넓은 독서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씨는 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교과서 필기 외에 왕도가 없다고 말한다.

◇미국 대학을 목표로 김씨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것을 마음 먹은 것은 중학교 2학년 즈음이다. 민사고의 국제반에 대해 알게 되면서 더욱 구체화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여수시교 육청의 ‘영재교육원’을 다닌 것 외에 민사고 입학 을 두고

◇영어 책을 좋아한 초등학생

김씨의 유일한 과외 공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했던 영어 학습이다. 영어를 특히 좋아했던 김씨는 알파벳을 익히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자 영

초등~중1 학습지로 영어공부...영어소설 많이 읽어 “美 대학 공부만 잘해선 안돼 동아리·봉사 활동할 것”

어로 된 책을 다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주로 영어 소설을 읽었는데, 한 번 잡으면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독서에 빠져들었다.

김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습지 회사에서 실시한 영어 경시대회를 입상, 미국으로 1주일 동안 문화체험 연수를 가는 기회를 잡았다. 당시의 경험은 김씨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UCLA를 둘러보고 LA의 미국인 가정에서 며칠 동안 생활을 했죠. 그런데 나와 같은 또래의 미국 아이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은 찾아서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또 미국 초등학교의 수업 장면은 김씨에게 너무 낯설었다. 교사와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라기보다는 노는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미국 아이들의 자립심과 사회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 때부터 김씨는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품게 됐다.

◇폭넓은 독서 논리·사고력 튼튼

김씨는 영어 소설을 읽는데서 그치지 않고, 듣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 오디오북을 이용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 이 과정은 민사고에 입학하기 전

따로 공부하진 않았다. 다만 영어가 중요한 만큼 영어 독서량을 늘렸다.

영재교육원에서는 중학교 때 고교 수준의 수학 등을 배운 것이 민사고 입학에 도움이 됐다. 또 좋아하는 과목인 물리와 관련한 여러 실험들을 해볼 수 있었던 것도 민사고 입학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됐다. 민사고에 입학한 뒤에는 고전 중심의 영어 독서를 함으로써 단어를 늘렸다. 대도시나 외국에 살다 온 학생들의 영어 수준에 전혀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동력이 됐다.

미국 대학은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뽑지 않는다. 김씨가 미국 유명대학에 복수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학과 공부와 활동에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고 내리코더 합주 동아리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가 하면 3~4개의 동아리에서 활발한 과외 활동을 했다. 자원 봉사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영어나 물리 등 국제 경시대회 수상 경력도 한 몫 했다.

다만 이같은 활동을 초·중학교 때부터 하지 않았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김씨는 “미국의 대학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 외적인 활동을 함께 해야 유리하다”고 충고한다. 김씨는 유엔에 입학하면 공학과 함께 정치나 경영 쪽을 복수 전공할 예정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모두 섭렵한다면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도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오는 9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유엔)에 입학 예정인 김정선씨가 합격 통지서를 든 채 활짝 웃고 있다. /위정리기자 jwii@kwangju.co.kr



김양(왼쪽)·조흥순(오른쪽)씨 부부가 둘째 딸 김정선씨와 여수시 선원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포즈를 취했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성격 스스로 학습법이 비결”

김정선양의 어머니 조흥순(47)씨는 ‘정선이 엄마’로 더 유명하다. 대개 큰 자녀의 이름을 따서 어머니의 별칭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씨의 경우 1남2녀 중 둘째 딸인 정선이가 내세운다. 이유는 어릴 때부터 정선이가 ‘공부 도사’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이다. “정선이의 공부를 위해 특별하게 해준 것은 없습니다. 워낙 혼자 알아서 하고 간섭받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해라, 저거 해라하는 식으로 공부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정선이에게는 도움이자면 도움이죠.” 공부 잘하는 딸을 둔 것에 주위의 부러움을 산 것은 좋지만 마음 고생도 많았다. 정선이가 민사고에 입학한다고 했을 때 조씨와 남편 김용(47)

‘공부 도사’ 딸 덕분에 자신도 유명세 ‘유엔’ 입학 기쁘지만 유학비용 걱정

씨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굳이 강원도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하느냐. 게다가 학비도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라는 것이 이유였다. 자신 이기는 부모 않음. 조씨 부부는 결국 정선이의 의지와 담임 선생님의 설득에 넘어갔다.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생각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선이가 민사고에 다니는 3년 내내 이 지역의 한 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실감한 순간이었다고 조씨는 당시를 회상했다.

민사고 국제반 입학과 동시에 예견된 일이지만, 조씨 부부는 새로운 고민에 쌓였다. 정선이가 올 9월 학기 유엔에 입학해 공부하자면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연간 5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 등 장학재단 3곳에 신청서를 접수해둔 상태다. 조씨는 “만만치 않은 유학 비용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장한 딸을 보던 금세 근심이 가신다”며 환하게 웃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sections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첨단월세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알파공인중개사', and 'BM公認仲介士事務所'.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with details on location, price, and features.